

(...8페이지에 이어)
선 투표 때까지 은폐했다. 민주당은 이후에도 '당 소속 공직자의 중대 잘못으로 생긴 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대국민 약속까지 뒤집었다. 이제는 성추행 빈자리를 또 차지하겠다고 신공함 갈등을 다시 들추고 나온다.

당초 신공함 담당 부처인 국토부는 물론 총리실 검증 위도 '김해 신공함 확장 원안 이 옳다'는 쪽이었지만 여당의 막무가내 압박에 입장이 바뀌었다고 한다. 민주당 원내대표가 난색을 표하는 국토부에 욕설을 하며 "차관 들어오라 해"라고 고함치는 장면도 목격됐다. 이런 일이 얼마나 더 있었겠나. 파렴치와 안면 불수의 연속이다.

4년 전 동남권 신공함 사



업 타당성을 조사했던 프랑스 업체 책임자는 "김해를 보류하고 가덕도를 추진한다면 난센스"라며 "이를 뒤집으면 한국의 국제적 신인도가 손상될 것"이라고 했다. 당시 가덕도는 김해 확장보다 무려 6조원이 더 들 것으로 추산됐다. 기존 김해공항의 효용성이 급감하는 것까지 감안하면 가덕도 밀어붙이기에 추가 비용 10조여 원이 발생하는 것이다. 민주당 귀책 사유로 안 써도 됐을 세금 수백억 원을 들여가며 보궐선거를

▲ 오거돈 부산시장이 여직원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며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하게 됐는데, 민주당이 그 책임을 지기는커녕 오히려 국민 세금 10조원을 파하여 부산 시민의 표를 사겠다고 한다. 오거돈 시장이 성추행을 했는데 죄 없는 국민이 10조원을 내야 하나. 이런 기막힌 일도 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는 이보다 더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미 대통령도 못 믿는 미 선거제도에 전 세계가 물음표

(...8페이지에 이어)
디에 살든 한 표를 동등하게 대접하는 직선제였다면 이런 소송과 결과 발표 지연, 그로 인한 혼란과 분열 등은 상당수 생기자도 않을 문제였다. 실제로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직선제에 대한 요구가 높다.

시민단체 '메이크에브리보트 카운트'가 지난해 7월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최다득표를 얻은 사람이 당선되도록 하는 방식에 65%가 찬성해 반대(26%)를 압도했다. 퓨리서치센터의 조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난다. 2016년 11

월 선거인단을 없애는 개헌에 51%가 찬성했는데 2018년 3월에는 55%가 찬성하며 소폭 증가했다.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단순한 규칙이 혼란의 대선을 치른 미국 사회에서 다시 화두가 될 수 있을까.

추미애, 초유의 대면감찰로 윤석열 사퇴 압박

법무부 평검사 2명 대검찰청 방문, '19일 조사' 서류 들고 윤석열 면담 요구
윤석열 거부... '불법감찰에 불응' 입장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조사를 19일 오후 2시에 진행하겠다고 대검찰청에 17, 18일 이틀 연속 통보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대면 감찰은 사상 초유의 일인 데다 감찰에 착수하면 직무배제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실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사퇴를 종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총장은 근거 없는 불법 감찰에는 응할 수 없으며, 감찰에 따른 징계에 소송을 하면서 사퇴를 거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검찰담당관실에 파견된 평검사 2명은 전날 오후 2시경 사전 일정 조율 없이 대검찰청을 방문해 윤 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19일 오후 2시 윤 총장을 대면 조사하겠다는 감찰 일정 담긴 서류를 전달하려고 했다. 대검 전무근 정책기획과장이 먼저 윤 총장을 만났고, 윤 총장은 "조사하고 싶은 의혹을 정리해서 보내 주면 충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과장은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를 찾아가 윤 총장의 뜻을 전하고 봉투를 전달했다. 법무부는 18일 오후 대검 측에 윤 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다시 한번 전달했다.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전날 오전 대검 측에 검찰총장에 대한 방문조사예정서 전달을 위한 방문 의사를 알렸다"며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최대한 예의를 갖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추 장관은 라임 사건의 검사 비위 은폐, 유평터스 관련 무혐의 처분 경위 등 윤 총장을 겨냥한 감찰을 지시했다.

대검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윤 총장은 진상 확인 차원에서 필요한 내용을 물어오면 그에 협조하겠지만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불법 감

찰은 거부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노골적인 모욕 주기도. 굴욕감을 겪서 내보내겠다는 것이 아니냐."(검찰 고위 관계자)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최대한 예의를 갖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법무부 공식 입장)

법무부 검찰관실 소속 평검사 2명이 17일 대검찰청을 방문한 뒤 19일 오후 2시 윤 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 조사를 통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과 법무부는 정반대의 입장을 내놨다.

윤 총장이 감찰조사를 받게 되면 현직 검찰총장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감찰 대상이 된다. 법무부가 서면 조사 없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을 통보하는 방식을 놓고도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윤 총장은 진상 조사에는 협조하되 근거가 없는 불법 감찰은 거부한다는 입장으로서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이 사생결단 식으로 충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법무부, 총장 대면 감찰 이틀째 일방 통보**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7일 오후 2시경 법무부 검찰관실의 이모, 윤모 검사 등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대검을 찾아가 "윤 총장을 만나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대검 전무근 정책기획과장은 "잠깐 기다려라. 총장 말씀을 먼저 듣고 전해주겠다"고 답을 한 뒤 윤 총장을 만났다. 하지만 평검사들은 봉투만 남겨두고 사라졌고, 휴대전화를 꺼둔 상태였다. 이 봉투엔 19일 오후 2시에 윤 총장을 조사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조남관 대검 차장은 윤 총장의 감찰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류혁 법무부 검찰관에게 전화로 항의했고, 류 검찰관은 "그런 일이 있었느냐. 몰랐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과장은 해당 봉투를 들고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의 검찰관실을 찾아갔지만 류 검찰

관의 부하 직원인 박은정 법무부 검찰담당관은 봉투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검찰담당관은 전 과장에게 "당신이 검찰총장 대변인이냐"라며 항의했다고 한다. 전 과장은 "궁금한 점을 정리해서 보내주면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충실히 답하겠다"는 윤 총장의 의견을 평검사에게 전달하고, 봉투를 남겨둔 채 복귀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검찰총장 비서관에게 총장 조사가 필요하니 원하는 일정을 알려 주면 언제든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대검 측이 일정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면서 "17일 오전에 대검 측에 검찰총장에 대한 방문조사예정서 전달을 위한 방문 의사를 알리고 오후에 대검에 갔으나 대검 측이 접수를 거부해 돌아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18일 오후 대검에 윤 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 조사를 19일 오후 2시에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으며, 윤 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 조사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 **윤 총장 "근거 없는 불법 감찰 거부"**

법무부나 검찰 관련 규정에는 감찰 방식이나 순서, 대면 조사 과정 등을 세밀하게 못 박은 내용이 없다. 통상적으로 평검사를 감찰할 때 사전에 당사자에게 문서로 소명 과정을 거친 후 최소한의 범위에서 면담 조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현직 검찰총장을 감찰하면서 사전 조율을 생략하고 직접 면담을 먼저 요청한 것은 상식 밖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위사항 등이 명확히 드러나야 감찰에 착수할 수 있는데 법무부가 감찰하려는 윤 총장 관련 의혹이 감찰 대상인지도 불분명하다. 법무부의 감찰 대상에는 윤 총장의 특수활동비 사용 명세와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윤 총장이 대면 감찰을 거부하면 추 장관이 지시 불이행 등을 근거로 직무배제나 징계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총장은 소송으로 저항한다는 입장을 정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SL Dental Centre on 4th St
(previous Killarney Dental Clinic owner)
한인 치과의사 산 리 Sean Lee
Tel: 403-228-5367 / Fax: 403-229-2876
website: www.sldentalcentre.ca
email: mission@sldentalcentre.ca
SL DENTAL CENTRE: 1000 Mission Professional Bldg
2303 4th Street SW, Calgary, Alberta T2S 2S7

김한솔 탈출극, 국정원은 어디에?



아프리카에서 근무하던 북한 외교관이 어느 날 평양 외무성 친구로부터 "순님이 간다"는 전화를 받았다. '너 잡으러 간다'는 암시였다. 그 길로 부근에 있던 서유럽국 대사관으로 달려가 망명 신청을 했다. 다양한 정보 요원들이 와서 나라별로 어떤 대우를 받는지 설명해줬다고 한다. 그는 "여러 나라를 거쳐 탈출하려면 CIA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10여년 전 김정남이 사는 마카오의 한 아파트를 찾아간 적이 있다. 아들 김한솔이 다니던 국제 학교 부근이었다. 북한 요원들이 해코지하지 않을까 걱정했더니 안내해준 현지인이 "북한이 아니라 마카오 경찰한테 걸려 곤욕이나 치르지 마라"고 했다. 중국이 자기 영토인 마카오에서 김정남 가족이 다치

는 걸 막으려고 오히려 북접근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7년 2월 김정남은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마카오로 가려다 암살당했다.

▶한국계 재미 작가가 그제 미 주간지에 쓴 김한솔 가족의 마카오 탈출기는 영화보다 극적이다. 김정남 살해 다음 날인 14일 김한솔은 자기 집을 지키던 마카오 경찰이 없어진 걸 보고 위험을 직감했다. 4년 전 파리에서 만난 반북(反北) 단체 리더인 에이드리언 홍 창에게 탈출을 도와달라고 급히 전 화했다. 홍 창의 주선으로 15일 새벽 대만 타이베이 공항에서 한국계 미 해병대 출신과 김한솔 가족이 만났다. 몇 시간 뒤 어느 국가에서 홍 창에게 '김한솔 가족을 받아주겠다'는 연락이 왔다. 그날 밤 김한솔 가족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으로 가려

했지만 탑승 시간이 늦었다는 이유로 저지당했다. 이때 CIA 요원이라는 두 사람이 나타났다. 김한솔 가족은 출국할 수 있었다.

▶다음 날 비행기 탑승 직전 김한솔은 "홍 창과 네덜란드·중국·미국 정부 등에 감사하다"는 동영상 찍었다. 암스테르담 공항에 내린 뒤 누군가에게 이끌려 공항 내 호텔로 이동했다. 홍 창은 호텔로 간 김한솔과 통화만 하고 만나지는 못했다. 이후 김한솔 가족은 종적을 감췄다. 네덜란드에 있는지, CIA와 미국으로 갔는지도 불분명하다. 분명한 건 아직 무사하다는 사실이라고 한다.

▶홍 창은 2004년 예일대에 진학하면서 북한 인권 운동에 눈을 뗐다. 지하 조직 '자유조선'을 만들어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을 공격하기도 했다. 돈과 출세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데도 위험을 무릅쓰고 북한과 싸우고 있다. 그런데 이 영화 같은 김한솔 탈출기에 당사자인 한국의 국정원은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무능해서일까, 신출귀몰해서일까. 후자 이기를 바랄 뿐이다.

헤민 스님



헤민 스님은 2012년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란 책을 내면서 본격 등장했다. 그 전에 이미 '트위터하는 승려'로 잘 알려진 유명인이었다. 이 책은 300만부 이상 팔리며 2010년대를 통틀어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마음의 평안과 무소유, 경쟁하지 않는 삶에 대한 짧은 글들이 주로 30대와 여성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후 헤민은 TV 예능 프로그램을 중형무진하면서 연예인급 인기를 얻었고 이어 출간한 책들도 베스트셀러가 됐다.

▶그러는 사이 이런저런 구설에도 올랐다. 책 표지와 내부 그림을 제공한 화가가 "내 그림을 공짜로 가져다가 애초 약속과 달리 삽화로 전락시켰다"며 문제 삼아 그림을 모두 교체해 재출간했다. 워킹맘들에게 "아이들과 함

께할 시간이 없으면 새벽 6시부터 45분 정도 같이 놀아주라"고 했다가 "왜 엄마만 맨날 미안해해야 하느냐"는 반발을 사기도 했다.

▶최근 그는 자택을 TV에 공개했다가 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 삼성동 2층짜리 단독주택을 본 네티즌들이 등기부 등본을 때 보니 헤민이 2년 전 한 불교 단체에 매각한 건물이었다. 그런데 그 불교 단체 대표가 헤민 본인이라는 것이다. 그는 지난 봄에도 건물주 논란이 일자 "건물주 아니고 세 들어 살고 있다. 임대료 때문에 걱정"이라고 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헤민은 조계종에서 승적을 받았으나 절 생활을 하지 않고 서울 시내 사무실로 출근해 명상 앱을 개발하는 등 일반 승려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왔다. 그러나 그의 홈페이지

지 약력은 '산철 불암사에서 수행하는 승려'라고 돼있다. '산철'이란 하안거와 동안거를 제외한 기간이다.

▶한국 선불교를 외국에 알리고 있는 미국인 현각 스님이 어제 소셜미디어에서 헤민이 집에서 명상하는 방송 영상을 올리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팔아먹는 기생충" "사업자이자 배우" "도둑놈"이라고 비판했다. 현각의 일갈에 인터넷에는 "헤민 책 인쇄만 수십억원" "무소유가 아니라 풀(full)소유"라는 글들이 온종일 올라왔다. 헤민이 운영하는 '마음치유학교'에서 타로카드 읽는 법을 가르치고 직장인 남녀 만남을 주선한다는 걸 지적하며 "이게 불교와 무슨 상관이야"는 비판도 나왔다.

▶해탈한 부처라면 모를까, 말과 완벽히 일치하는 삶이란 불가능한 것이 인간이다. 헤민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간은 본디 모순이 많은 존재라는 생각이 든다"고 썼다. 불교는 '공수래 공수거(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를 강조하는 종교다. 헤민 스님은 '공수래 만(滿)수거'가 되고 만 것인가.